“이 시대 멋쟁이가 되고 싶나요? 그럼 불교로!”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

불교 문구 담긴 티셔츠 인기 폭발
불자 본분 다하려 출가학교 체험
늘 ‘알아차림’으로 상황 바르게 봐
불법 담긴 음악 해외서 알리고파

“사실 멋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외모, 옷, 자산 등 여러 면에서 멋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불교는 진정 이 시대 ‘멋진 인간의 길’을 안내하는 멋쟁이 중의 멋쟁이예요. 불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감정을 닦아내는 성찰을 일러주죠. 이보다 멋진 게 어디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면 삼일 밤을 새도 모자라다는 주여진 해탈컴퍼니 대표(30)가 끝도 없는 불교의 매력을 자랑했다. 주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스님인 아버지 덕분에 불교는 그에게 특별한 가르침이라기보다 일상이었다. 그렇다고 불교 교리를 깊이 공부하거나, 엄격한 불교적 삶을 산 건 아니다.

그런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년여 전쯤, 아버지 곁에서 범어(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쓴 것)를 보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티셔츠에 범어를 새기는 것’이었다. 처음엔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불교를 알리는 나만의 재능은 이거다!’ 싶은 순간이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을 접목한 불교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었다. ‘깨닫다’ ‘중생아 사랑해’ ‘응~수행정진하면 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는 2024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MZ세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대란을 일으켰다. 불교에 대한 쉽고 유머러스한 접근이 MZ세대의 취향에 딱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스스로 ‘불자’라는 긍지와 책임감이 생기자 그에 걸맞는 불자의 본분을 다하고 싶었다. 곧바로 월정사 출가학교를 찾아 3주간 한국불교 전통 승가생활을 경험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산내 암자를 참배하고, 예불을 올리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다. 출가학교가 끝난 후에도 도반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법담을 나누고, 1080배 절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도 실천한다. 항상 마음속으로 ‘알아차림’ 하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상황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연습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 대표는 최근 잠시 접어뒀던 사운드 디자이너의 꿈을 다시 불태우고 있다. 사운드 디자이너는 사물의 소리나 효과음을 조작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티셔츠를 만드는 일보다 주 대표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음악을 제작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불교의 멋’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기회로 바꿔 ‘찐’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주 대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교 입문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마음가짐과 진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불교에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불법이 담긴 음악 제작이 목표라는 주여진 대표.

“저도 불교 입문자와 다름없어요. 교리나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불교에는 명상·템플스테이·집중수행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이미 불교에 마음을 열고, 그 길을 향해 발심했다는 점이에요. 그 자체로도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엄마는 관세음, 친구는 부처님…불교, 멀리 있지 않아요”

김효승 작가

모태불교서 시작된 부처님 인연
지금껏 100여 불화 · 불상 조성해
재료 · 마음속 ‘부처님’ 찾는 마음
“불화 보고 모두가 편안해지길”



불화 조성에 열중하고 있는 김효승 작가.

김효승 작가(15, 조치원중)는 불모(佛母)다. 불화(佛畫), 불상(佛像)을 조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김 작가는 재료 속 부처님을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붓을 든다. 그는 올해로 만 15살. 화실보다는 피시방과 노래방이, 부처님보다 친구들이 어울릴 법한 나이다. 그러나 김효승 작가의 붓은 언제나 부처님을 향해 있다.

김효승 작가의 불연(佛緣)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다. ‘모태불자’인 셈이다. 어머니가 서울 도선사에서 종무원으로 일했던 것이 인연이 됐다. 세상에 나오고 나서도 김 작가의 놀이터는 사찰이었고 부처님과 스님은 그의 친구였다.

가랑비에 옷 젖듯 불자가 된 그는 어릴 적 불교방송을 많이 봤는데, 자꾸 부처님과 보살님을 가까이서 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스케치북과 지점토를 집어 들고 독학으로 부처님을 조성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 작가는 100여 점에 달하는 불화와 불상을 탄생시켰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소조석가모니불좌상’이다.

‘소조석가모니불좌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건 계룡 갑사를 찾았을 때였다. 장엄하게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다. 김 작가는 그 자리에서 불상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백방으로 불상 조성법을 알아봤다. 관련 책자는 탐독하는 것은 물론, 선배 불모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그는 1층 베란다에 자리를 잡고 부처님을 조성해 나갔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나, 개금불사까지 마친 여법한 부처님이 모습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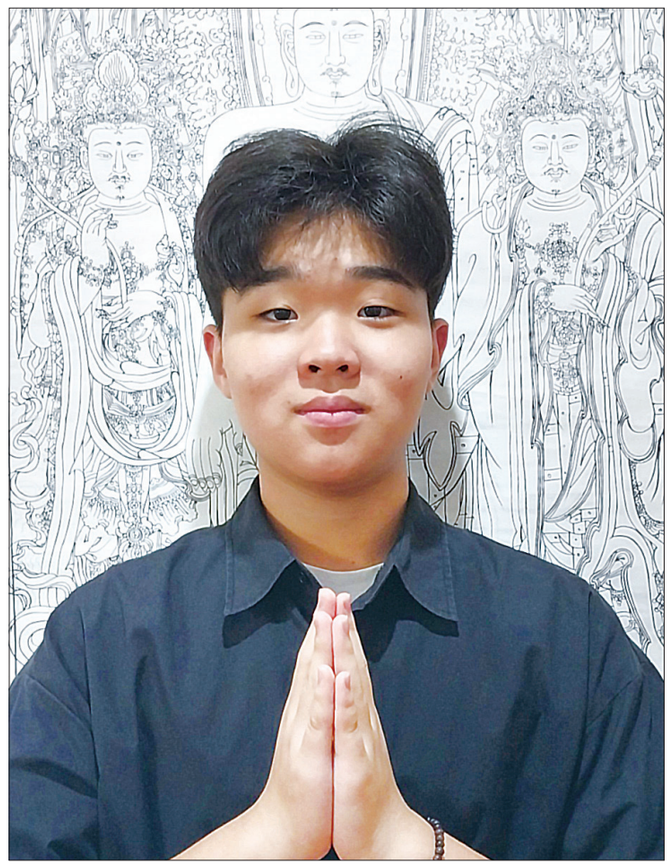
“불상을 만들 때, 누구든지 이 부처님을 뵙게 된다면 다친 마음이 치유되길 발원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모두가 편안해지길 바라는 자비심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다만 뭇 중생의 행복을 발원하기 이전에 그에 걸맞은 신심(信心)과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 작가 역시 온전한 부처님을 찾기 위해 신행생활에 열심이다. 집에 작은 불단을 설치한 그는 매일 참선수행과 〈금강경〉 독송으로 산란해진 마음을 가라앉힌다. 작품 조성에 진전이 없거나, 번민이 올라올 때는 집 근처 사찰을 방문해 스님들과의 차담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김 작가는 이 지난한 수행과 불모의 길 끝에는 ‘깨달음’이 있길 서원했다.

“부처님은 ‘모든 게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가 담긴 ‘불성(佛性)’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을 볼려면 수행이 필요하죠, 제가 부처님을 열심히 조성하는 이유도 그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끝으로 그는 새해 불교를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어렵고 난해해 보이지만, 어떤 종교보다도 삶과 맞닿아 있는 일상의 종교가 ‘불교’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불법(佛法)은 멀리 있지 않으니, 조금씩 알아가길 바랬다.

“불교는 일상에 있는 삶의 종교예요. 엄마가 ‘관세음보살’이고 친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보면 삶 곳곳에서 깨달음의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심 스님
-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여성 수석 부회장
- 안성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